

“삶의 마지막 시간... 난 쓴다, 꼭 써야할 글이 있다”

컬처 & 피플

작가 복거일

항암치료 거부하고 글쓰기에 매진

여기 한 작가가 있다. 평생 소설을 써왔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향해 말 걸기를 시도해왔던 중견 작가다. 그의 작품 가운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소설도 있다. 문학사에 남을 작품이 있다는 것은 문학 인생이 나름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는 방증일 게다.

작가 복거일(68). 그가 ‘불치’ 병에 걸렸다. 2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지만 엔일인지 치료를 거부했다. 왜일까? 아니 왜 그랬을까?

“치료받기엔 좀 늦은 것 같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글 쓰는 데 쓸란다. 한번 입원하면, 다시 책을 쓰긴 어려울 거다. 암 치료받기 시작한 작가를 결국 소설다운 소설 못 쓰고서... 작가가 작품을 쓰지 못한다면, 사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나. 그리고 꼭 써야 할 작품이 있다.”

위의 말은 작가 복거일의 말이 아니다. 작가가 쓴 소설 속 주인공의 말이다. 부연하자면 복거일이 최근 펴낸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라는 장편 소설에 나오는 현이림이라는 주인공의 말이다. 역시나 그는 작가였다. 자신이 암에 걸렸고, 치료를 거부한 채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작가가 아니었다면 항암치료를 선택했을 거다. 그러나 나는 작가로 살아왔고 여전히 작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 또한 작가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했다. 물론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만 만만치 않았다. 왜 안 그러겠는가? 그러나 치료보다는 창작에 매진하겠노라며 가족들을 설득했다.”

최근에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하얗게 센 백발 뿔이던지 중후한 중년의 이미지가 묻어나왔다. 병색으로 하얗게 센 게 아니라 창작의 고투에서 비롯된 변화의 과정인 듯 했다. 지나온 삶의 그림자가 얼굴에 남아 있는 것은 복 거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1946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해방공간에서 당시 여는 젊은이들처럼 진보적인 학문에 심취할 만큼 지적인 욕망이 강한 분이였다. 거일(鉉一)이라는 이름에는 지적인 분야에서 크게 되라는 부친의 소망이 투영돼 있다.

‘영어공용화론’ 주장한 보수주의자

얼마 전에 그의 장편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가 제17회 동리문학상에 선정되었다. 소설은 이전에 출간되었던 ‘높은 땅 낮은 이야기’(1988년), ‘보이지 않는 손’(2006년)에 이어지는 자전적 소설의 완결적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되는 작품이다.

사실 복 거일 하면 지식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자유주의 사상가, 칼럼리스트, 작가, 시인에 이르는 다양한 직함은 그를 한곳에 정주하지 않고 지적인 편력을 하도록 강제했다. 그 유목적 횡단 과정에는 지금까지 12편의 소설과 20여 권이 넘는 문학 및 사회 비평서가 자리한다.

그러나 복거일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주장이 있다. 다음 아닌 ‘영어공용화론’. 복거일을 일반 대중에게 각인시킨 대표적인 주장이다. 그로 인해 그는 세상과의 불화를 겪어야 했다.

“언젠가 길을 가다 골목 한쪽에서 작은 수레를 놓고 호떡을 굽는 늙은 할머니를 본 적이 있다. 그 곁에는 코를리개 작은 코마가 서 있었다. 문득, 저 작은 아이는 어떻게 영어를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인들은 알아서 영어를 배우고 그 지식들은 외국 유학까지 보내는데, 과연 저 아이와 같은 애들은 어디서 영어를 배울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영어공용화론은 우리 국어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다. 영어를 접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의미다.”

그는 경제학을 전공한 몇 안 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일반의 인문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작가와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



다.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시장경제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는 의미다.

복 거일은 “보통의 작가들은 발전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면, 일테면 빈부 격차, 환경 폐해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지만 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이룩한 긍정적인 면을 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한다.

“세간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네 길을 가라”

지식인의 길을 향해 나름의 꾀대를 상징하고 달려왔던 그의 생도 만년에 접어들었다. 그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딸도 아버지처럼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다. 복 거일이 이번에 펴낸 에세이집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들’에 수록된 그림을 딸이 그렸다.

“한 시점에서 너의 작품이 뛰어나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와도 그것을 견딜 만한 내용이 있는지 돌아 보거라.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확고한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그 길을 가라”

그가 딸에게 건넨 말이다. 작가 복거일이 좋아하는 예이츠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삶과 죽음에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말탄 자 지나가다’. 복 거일의 묘비에는 과연 어떤 글귀가 쓰이게 될까. 아니, 그의 문학이라는 ‘묘비’에는 어떤 평이 뒤따를까. 기자는 성급하게도 그의 후속작, 그리고 그 다음 후속작이 기다려진다.

/서울=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서정가제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판매량 급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 시행 한 달 동네서점 판매량 급감 없었다

학습참고서 구매 부담 늘 듯

도서정가제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시장은 다소 연착륙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유통업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판매량과 출간 종수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애초 우려했던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이나 판매량 급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교보문고에 의뢰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간(新刊) 수는 2302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가량 줄어 들었다. 온라인서점 예스24의 경우 예년 수준으로 15.4%가 줄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6.2% 감소하는데 그쳐 정가제 시행 이전 특수를 고려하면 생색할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평균 정가는 10% 정도 낮아져 구매자들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됐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도입 효과는 아직 구간(舊刊) 도서의 구매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신창동 시민문고 이윤혜 대표는 “동네 서점이나 중소서점은 도

서정가제 시행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품이 많은 단행본의 가격이 정상가로 환원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첨단 세종문고 이승용 점장도 “책 판매량이 예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 같지 않다”며 “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하는 독자들은 직접 발품을 팔아 자신이 원하는 책을 산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단행본, 신간과 달리 초등학교 참고서와 학습서는 구매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도서정가제에서는 예외였지만 새롭게 정가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신학기 참고서와 학습서를 구입하려는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체부의 조사 결과, 내년 1학기 초등학교 학습참고서의 판매가격 인상은 올해 2학기 대비 4.5% 수준을 보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년의 인상폭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가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초대 지원전 공모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상록전시관 미술단체 초대 지원전 공모’를 진행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지역 미술 동호인들의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2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광주 지역에 소재를 둔 법인 단체 및 비법인 동호회로 분야는 회

화, 조각, 디자인, 공예, 서예 등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상록전시관 단체전에 초대됐던 단체는 제외된다.

선정된 단체에게는 상록전시관 사용료 및 대관료를 면제해주고, 작품 관리 및 홍보를 지원해 준다.

선정 단체는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33.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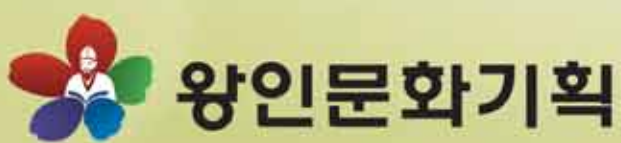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